

# 사드로 막힌 中 대체...완도전복 동남아 진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240만달러 수출 합의 전남도 시장개척단 내달엔 필리핀·베트남 등 수출 상담

완도산 전복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막힌 중국 수출길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전남도와 완도전복추진회(이하 완도전복)에 따르면 완도전복은 최근 전남도 시장개척단과 함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현지 무역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통해 완도산 전복 240만달러 상당의 수출에 합의했다.

완도전복은 싱가포르에 40만달러 상당의 전복통조림을 수출하기로 하고 견적서를 보낸 상태다.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100만달러 상당의 냉동전복 수출에 대

한 업무협약(MOU)을 진행 중이다.

완도전복 측은 현지 반응과 합의 진행상황이 순조로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달 전남도 시장개척단이 광저우·필리핀·베트남 수출 상담을 진행할 때 이들 바이어를 다시 만나 수출 계약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

완도전복은 특히 홍콩과 함께 통조림 시장 중심지로 알려진 싱가포르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뉴질랜드와 호주산 전복을 선호하는데 사전에 현지 반응을 조사한 결과 완도전복 통조림의 품질이 그에 버금간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형수 완도전복 사장은 "완도 전복은 정정바다에서 미역과 다시마만을 먹어 길러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장 개척에서 완도전복의 안전성에 마케팅을 집중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산과 같은 종인데도 한국산의 가격이 비싸 진입 정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완도전복은 맛, 품질, 양식환경 등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바이어들을 설득하고 초기 판촉인 점을 고려해 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그동안 테스트 또는 시식용 등으로 소량씩 수출되기는 했으나 완도산 전복이 컨테이너에 실려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지난 6월 310만달러 상당의 냉동전복을 컨테이너(40TEU)에 첫 선적해 캐나다로 수출했다.

완도전복은 사드 영향 등으로 지난 1월

수출이 끊긴 중국 시장을 일부나마 대체할 곳으로 동남아 시장을 보고 있다.

김 사장은 "몇 년간 전복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내 수요는 한계에 부딪혀 수출을 활성화해야만 수요가 맞는 상황"이라며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한국 전복을 대표해 수출길을 트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시장 다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수출길 개척은 까다롭고 위험이 따른다. 첫 수출이 성사되면 불류비 지원 등 시장 개척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완도전복은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인 완도의 어민, 수협, 자치단체 등의 출자로 2009년 출범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해남 새송이버섯.

<해남군 제공>

##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 매주 토요일 생존수영 교육

해수욕장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오는 12일부터 폐장 때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생존수영은 매주 토요일 4차례(오후 1시, 2시, 3시, 4시) 실시되며 한 차례당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생존수영은 가장 기초적인 수영법으로 '호흡', '뜨기', '이동', 자체에 중점을 두는 수영법이다. 물과 친해지기(공포심없애기), 물에 뜨기(배면뜨기), 호흡하기(음파호흡), 체온유지(온크리기) 등 자기구조법 교육을 진행한다. 문의 061-550-6921.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해남 옥매광산 수물 광부 추모 조형물 세운다

### 옥동선작장에 내달 6일 제막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하다가 광복을 맞아 귀향하던 중 수몰된 '옥매광산 광부 수몰 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건립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옥매광산 광부 118명 집단수몰사건 추모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추진위는 광부들이 제주도로 끌려갔던 해남군 황산군 옥동선작장에 추모조형물을 세우고 합동제사날인 다음달 6일 제막

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배 모양의 조형물에는 희생자 118명을 상징하는 동그라미가 새겨지게 되며 진도 울돌목에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동상'을 건립한 이동훈 작가가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다.

추진위는 1000만원(1인 1구좌 1만원) 성금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모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980여만원이 모금됐다.

제주도 옥매 광산에 강제 동원됐던 해남 광부 222명은 광복 직후인 지난 1945년 8월 20일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완도 청산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해남 땅끝 순례문화관 완공 3년째 하자분쟁

### 공사업체와 보수 놓고 소송

해남 땅끝 순례문화관이 건립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 순례문화관은 지난 2014년 7월 고산 운산도 유적지 인근인 해남읍 연동리에 64억원에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면적 1484㎡)로 완공됐지만 여태껏 개관을 하지 못했다.

군은 문화관에 해남 출신 문인 작품, 해남과 관련한 문학 작품, 문인의 생활용품, 문화재 자료를 전시, 소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완공 직후 현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가 하면, 핵심 시설인 수장고에 물이 차는 일까지 벌어져다. 해남군은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책임 여부를 따졌지만 가려지지 않자 지난 6월 법원에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보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에게 해남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알리겠다는 애초 구상도 당분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해남 새송이버섯 말레이시아 수출길

해남 새송이버섯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해남군은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새송이버섯을 말레이시아에 주 1회(100kg) 수출기로 하고 우선 52kg을 샘플용으로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새송이버섯은 해남버섯주식회사를 통해 전국 도매시장, 대형마트, 친환경급식

등으로 납품되고 있다. 해남군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현황 등을 지켜본 뒤 수출

국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국내보다 2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버섯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 해역은 해파리 안전지대?

### 수온 22~23도 '냉수대'

### 특량만 위기 경보와 대조

전남 바다에 해파리 비상이 내려졌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 때 출현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보성·고흥은 3년 연속 위기 경보가 발령된 특량만 일대 해파리 제거 작업에 매일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진도 해역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바닷물 온도가 30도에 근접하는 고수온 현상에도, 진도 해역은 예년과 비슷한 23도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8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동·서·남해 대부분 수역에서 27~2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수심이 깊어 예년 20~22도에 머물렀던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 중남부 연안마저 28~29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진도 해역의 수온은 22~23도로 다른 연안보다 최대 7도가량 낮다.

진도군과 수산업계 등은 저층의 찬물이 표층으로 올라와 수온이 주변 수역보다 낮은 '냉수대'가 진도 해역에서 형성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진도군 관계자는 "일부 군과 달리, 진도는 아직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웅5억포함)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